

서울경기 양계축산업협동조합 불광지소 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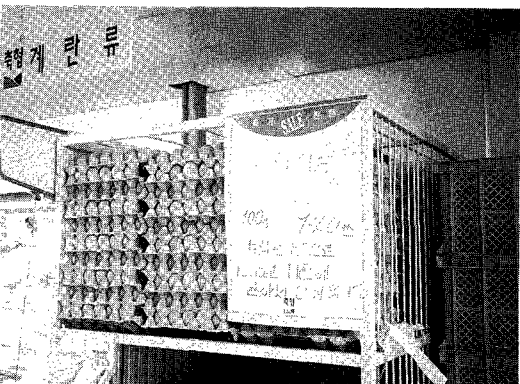
- 편집부 -



▲ 서울경기 양계축산업협동조합 불광지소 광경



▲ 개점 테이프 커팅 장면



▲ 저울에 달아 100g당 140원에 판매하는 계란판매장



▲ 닭고기 판매장 코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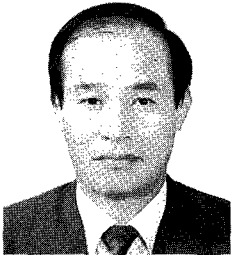
서울경기양계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최준구)은 지난 12월 22일 축산물의 유통구조 및 지역주민의 금융서비스를 위하여 불광지소 개점식을 가졌다.

불광동 신유빌라트상가 1층(전평 80평)에 자리잡은 서울경기양계축산업협동조합 불광지소(지소장 정종섭)는 '90년 면목동에 본소가 개설된 이후 장안평, 신촌, 장위동지소에 이어 지소로는 4번째로 개점식을 가졌는데, 축산물 판매장은 한우고기, 돼지고기를 비롯해 닭고기, 계란판매장도 마련되어 닭고기의 경우 각종 냉장 포장육 판매, 계란의 경우 등급에 관계없이 무계별로 판매를 하여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전국 800여개의 온라인 점포망을 통해 금융서비스도 함께 개점하여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02)382-3481~3).

가금위생 해외뉴스

오경록 ◀코너



오 경 록
남덕 씨니테크

□ 산란계에서 발생한 살모넬라 엔트리티디스(SE) 감염증

오오이다 가축보건소 관내의 산란계 80,000수 규모의 농장에서 '94년 12월에 인근부화장에서 5,000수 데칼브를 구입 입추하였다.

입추 3일후 부터 원기소실, 깃털이 일어서고, 웅크리고 있는 등의 증상을 보이고 폐사하기 시작하여 24일령까지 약 400수가 도태, 폐사하였다.

병계 12수를 병성감정한 결과 병리학적 검사에서는 간, 심장의 황색 선유물의 부착, 심장의 퇴색, 위 호산구, 탐식세포의 침윤이 보이고 면역조직 화학염색에 따라 각 장기에서 살모넬라 항원이 검출되었다. 세균학적 검사에서는 SE가 각 장기에서 분리되었고 SE는 36Md의 프라스미드를 보유하고 파지형은 4이었다. 이것으로 본 질병을 SE의 감염증으로 진단하였다.

농장에서는 병성감정 의뢰후 4일간 옥시테트라 싸이크린제를 4일간 투약후 결국 전계군을 도태하였다. 도태후 수세, 소독을 반복하고 재 입추하였다.

그 결과 1개월후까지 재발병은 되지 않았으며 75일령에 실시한 계사내의 계분, 음수, 사료에서의 균분리도 음성으로 나타났다.

발생농장의 성계에서는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육추사의 도태후 철저한 수세, 소독을 실시하여 청정화가 확인되었고 성계사 수용시까지 육성율도 97% 이상의 성적을 보였다.

본 질병 발생에서 산란계 농장에서의 SE 감염증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고 정확한 관계자의 협력하에 대책을 수립하면 조기에 질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하였다.

(AH 95. 12)

□ 감보로병 생독 백신(D 78) 야외시험

감보로병생독백신(D 78주)의 일본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야외 시험을 실시하였다. 야외시험은 2개소의 육계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85,925수의 육계를 대상으로 시험백신접종군, 시판백신접종군 A, B, 미접종군을 정하고 각 백신을 21일령에 각각 음수투여하였다.

2개 농장이 모두 시험기간중 시험백신 투여에 의한 일반 임상증상의 이상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육성을, 50일령까지의 출하율도 시험백신군과 시판백신군 간에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

시험백신 투여후 19일, 29일째의 중화항체는 P농장에서는 58.6배, 394배 Q농장에서는 468.5배, 1,114.5배이었고 시판백신 투여후의 중화항체는 P농장에서는 22.2~40배, 519.8~557.2배, Q농장에서는 5.5~6.8배, 203.9~937배를 나타냈다.

한편 미접종군은 P농장에서 29일째에 항체가의 급격한 상승이 있었으나 Q농장에서는 항체가의 상승은 인정되지 않았다.

Q농장의 백신투여후 21일째에 각 백신접종계 10수를 선발하여 야외 강독병원성주로 공격 시험을 한 결과 시험백신군은 100% 방어율을 보였으나 시판백신군은 방어율이 0~18.2%이었다. 또한 공격시의 항체가는 시험백신 투여군에서는 705.2배로 높은 역가를 보였다.

(NK 95. 12)

□ 일본 최초로 Mg 생독백신 12월에 판매개시

이번 판매하는 Mg 생독백신은 호주 멜본 대학의 호이트 박사가 개발한 온도 감수성주(ts주)를 백신주로 한 생독백신으로 호주에서 제품화하여 호주와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기존 오일사독백신과 비교하여 생독백신은 접종후의 면역(감염 방어능력)의 획득이 빠르고, 1회 접종으로 효과가 장기간(일생) 지속되며, 점안접종으로 접종작업의 편리와 스트레스

감소, 접종부위의 염증반응 등이 없는 등의 장점이 있다.

생독백신의 접종시 이익과 특징을 보면

① 산란개수가 증가한다.

② 피크산란율이 개선된다.

③ 90% 산란일령이 개선된다.

④ 사료요구율이 개선된다.

⑤ 생존율이 개선된다.

⑥ 점안접종후 조기(1주후)에 Mg 감염에 대한 방어효과가 있다.

⑦ 1회 점안접종으로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므로 추가접종이 필요없다.

⑧ 백신주는 33℃에서 발육이 좋고 39.5℃에서는 발육이 나쁜 온도 감수성주이므로 안하와동, 기관같은 상부기도에서는 잘 증식하여 강력한 면역을 부여하지만 체내심부의 폐나 기낭 등의 하부기도는 온도가 39.5℃로 높기 때문에 백신주가 발육하기 어렵고 기낭염을 일으키지 못하므로 안전성이 높은 백신이다.

⑨ 100수분을 1수에 접종하여도 10배량을 복강내에 주사하여도 병원성이 나타나지 않으며 안전성이 매우 높은 백신이다.

⑩ 동거감염, 수직(난계대) 감염을 일으키지 않는다.

⑪ 백신주는 병원성 복귀가 되지 않는다.

백신저장은 -70℃ 이하이며 창고 출고후는 -20℃ 이하에 저장한다. 용법, 용량은 37℃이하의 미지근한 물에 녹인 후 점안용 기구를 연결하여 접종한다. 3주령 이상의 닭에 잘 혼들어 1수당 1방울씩 점안 접종한다.

그리고 뉴캐슬병과 전염성 기관지염 혼합 생독백신과 동시 접종은 하지 않도록 한다.

(NK 95. 12)